

폭삭 속았수다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천지에 벚꽃이 만발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슬픔의 한 가지를 안고 서 있는 듯, 평소 찬란함은 없다. 가끔 만나 안녕 하시냐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이웃이 비행기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 국토의 70%가 숲인 이 나라에 벌써 하나가 일어난 천지를 태워버릴 기세로 우리를 위협했다.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다. 나는 요즘 꿈이 뒤송송하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다 손에 땀을 쥐고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그런데 4월 4일 오전, 온 세상이 환호를 터뜨렸다. 여기저기 겨우내 웅크렸던 사지를 활짝 피고 두 손 높이 올리며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모두가 힘들었다. 어떤 사람은 주말마다 광장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답답해 미쳐 버리겠다 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 견디기 힘들다 했다.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라 한다.

우리는 정말 두려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연실색, 속수무책으로 두 발 동동거리며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뒤송송한 사회 분위기는 벚꽃을 바라볼 여유도 없게 했다.

20여년 전, 장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았다. 40대 초반 미숙한 교사였던 나는 제주도로 300여명 학생을 이끄는 수학여행을 추진해야 했다. 사전 답사까지 다 마치고 마침내 떠나야 할 월요일 아침, 거칠고 큰 태풍으로 배가 출항하지 못했다. 당연히 수학여행은 뒤로 미루게 된 그날 아침, 교직원회의에서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하며 큰절을 했다. 마치 내가 그 태풍을 일으킨 것처럼, 자연의 순리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죄스러웠던 것이다. 한 학년을 이끌어가는 데도 세상과 자연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러 학생 교육활동의 진행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았고, 그 큰일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태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나는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덕이 부족해 큰일을 그르친 것이고, 지성이 부족해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거칠고 부족한 나를 고개 숙이게 했었다. 지도자는 함부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속 인물들은 거칠게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우리네 어머니 대부분이 애순이지 않을까? 어떤 아버지는 관식이고, '학 씨'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들이 쓰고 듣는 언어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통과 겸손 그리고 정성과 사랑이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한다. 요즘치는 우리 사회에 요즘 한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이다. 60년대 누구나 배고프던 시기에 제주 바다를 터전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바닷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가족을 먹여 살릴 전복 하나 더 따려고 깊은 바다에 자맥질하고, '호오이~' 숨비소리를 거칠게 뿜어내는 한 해녀와 그녀의 딸 애순, 그리고 그 애순이의 껌딱지 관식이가 주인공이다. 애순이는 엄마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꿈이 아무지다. 제주의 어촌계장과 더 나아가 대통령을 꿈꾼다. 그 애순이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코흘리개 관식이는 '영부인'이 꿈이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을 씩 훑어 보고 드라마 내용을 대충 짐작했다. 인생

이다 그렇지. 속고 속이는 것이 인생이지. 속이는 줄 알지만 속아주며 살아가는 것이지 뭐. 남편이나 아내로 만나 처음에는 달도 별도 다 따준다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어디 맘처럼 쉬운가? 뜻하지 않게 고난이 닥쳐오고 서로 고생을 시키게 되며, 거짓말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드라마 속 인물들은 거칠게 수고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우리네 어머니 대부분이 애순이지 않을까? 어떤 아버지는 관식이고, '학 씨'이다. 우리의 아이가 '금명'이고 또 '은명'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들이 쓰고 듣는 언어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선장 '학 씨'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었다.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 말투대로 그는 늘 외롭다. 어촌계장 선거에서도 애순에게 졌고, 자기가 번 돈으로 세끼 밥 먹고 호강했다고 큰소리치던 식구들에게서 중국엔 외면을 당한다.

애순과 관식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언어는 늘 따뜻하다. 애순과 관식은 공부도 잘하고 시도 잘 쓰는 딸 금명이가 고맙고 신기하다. '넌 하고 싶은 것 다 해. 뭐든 다 해. 엄마가 있잖아.' '금명야,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 그런데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뺨' 해. 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뭐든지 다 잘하잖아.' 그래서 딸 금명이는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 내고 끝내 성공을 거둔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바로 얻은 것 같지만, 곧 잃는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어떤 언어로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근본이고 그 위에 그 사람의 삶이 세워진다. 우리 모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자.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슬프지만 장한 인생으로 남는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진심의 말을 들으며.

이 봄에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같이 아쉽고 슬펐던 아까운 당신들이여, 모두 폭삭 속았수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것



"50년간 살아온 집이 다 타버렸어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못 살아..."

"주민들이 다 죽어가고 마을이 다 타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한순간에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린 주민들의 오열과 탄성이었다.

지난달 열흘간 지속된 영남 산불은 4만8160ha, 서울 면적의 80%를 태우고 꺼졌다. 이는 축구장 6만7375개 크기로 2022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산불의 두 배다.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수천 채의 주택 전소,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가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은 실화로 보인다. 그러나 고온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이 더 큰 원인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 산불로 산림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상실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한 번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것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그래도 다행히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국민은 수백억의 성금과 물품, 자원봉사 등 기부와 봉사, 헌혈을 통하여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난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얀바탕에 붉은 십자가 마크다. 이번 산불에도 적십자 봉사회는 수천 명의 이재민과 소방대원의 의식을 도왔다. 동시에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리적 지지와 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수년 전 동해안 산불 이후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산림청과 함께 피해지역인 경북 울진에서 '푸른 숲을 부탁해'라는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으로 축구장 100개 면적인 70ha에 나무를 심기도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러한 적십자의 자연보호 활동은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53년 4월 5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부산 서구 압남동 천마산에 청소년 200여 명이 모여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청소년적십자(RCY)의 첫 활동으로 식목일은 RCY 창립기념일이 되었다. 이후 매년 부대행사로 단원들과 함께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슬로건의 하나가 "인간은 자연보호, 자연은 인간 보호"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실천해야 하는 지향점이 아닌가 싶다.

이제 개나리와 진달래, 가로수길 벚꽃이 아름다운 봄이다. 이 봄을 즐기면서 지금 우리가 고온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이재민 돕기 방송사 ARS 모금에도 참여하고 생활 속 ESG를 실천해보자.

그 하나는, 4월 들어 많은 언론사나 단체에서 걷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도 포함한다면, 불씨가 되는 담배꽂이나 쓰레기를 주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클린하이킹도 활발해졌으면 한다.

또 하나로, 지금은 침체한 식목일에 너도나도 나무 한 그루부터 심는 것이다. 다시 1단체 1산 가꾸기 운동이 들끓어 일어나야겠다.

이것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각오로 시급히 산불로 황폐해진 산악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래야 자연도 인간을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